

## 전국 지역, 개별농가 토종씨앗은행 네트워크(토종씨앗지도)만들기

변현단\* / 토종씨드림 상임대표

백수연 / 토종씨드림 활동가

### 연구 필요성

2008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토종씨앗보전단체인 ‘토종씨드림(seedream)’이 결성되었다. 그해 12월, 대전에서 토종씨앗 나눔 모임을 열어 전국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온라인 카페 ‘토종씨드림’을 통해 토종씨앗운동을 홍보하고, 매년 토종씨앗 수집을 시작했다. 토종씨앗 수집은 지자체나 유전자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토종씨드림이 진행하고, 수집된 씨앗 일부는 토종씨드림 토종학교나 개인에게 나눔을 통해 증식했다. 증식한 씨앗의 일부는 토종씨드림 냉장고에 보관하고, 정기모임이나 수시모임을 통해 토종씨앗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했다.

본 연구 수행 전에는 수집된 종자가 증식을 통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씨앗의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차별 나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부터 일부 농부 또는 ‘토종농민회<sup>1)</sup>’를 통해 씨앗의 종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씨앗 증식은 토종씨드림 토종학교<sup>2)</sup>와 몇몇

---

\* 변현단: ‘씨앗의 꿈’, ‘씨앗 나눔’의 의미를 지닌 토종씨드림 상임대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토종종자와 전통농업을 확산시키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토종씨앗이 국민 밥상이 되는 날까지, 2008년부터 삶으로 씨앗운동을 벌여왔다.

1) 토종씨앗으로 전통농사 또는 자연농을 하는 전업농민으로 결성된 토종씨드림 내 농민모임이다.

2) 토종씨드림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씨앗받는 농사’를 실습하는 교육으로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수원 광고의 토종씨드림 채종포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다.

열혈회원의 몫이었고, 수집된 기록만 있지 씨앗증식에서 농가 정착에 이르기까지 ‘씨앗이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10여 년 넘게 지역 또는 전국으로 나눔을 해왔지만 씨앗을 준비하는 사람은 몇몇 회원에 불과했고, 나눔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었다. 나눔을 하는 농가들은 어떤 대가도 없이 나누는 일만 반복하였다.<sup>3)</sup>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충남 홍성군에 토종씨앗도서관<sup>4)</sup>이 만들어졌다. 홍성씨앗도서관은 향시 나눔을 위해 공간과 상주 인력, 채종포를 구비하고 있어, 특히 지역에서 수집된 종자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후에 생긴 경기 수원, 광명, 안양 등의 다른 지역 씨앗도서관이 생겼으나 운영비 문제로 대부분이 씨앗을 담은 작은 병으로 전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종자를 수집하고 나눔을 전개할 수 있는 지역별 토종씨앗보급소가 시급했다. 지역 토종씨앗 보전농가가 모여 지역별 모임 형태(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들이 이웃에게 나누면서 씨앗이 퍼진 전례를 통해 나왔다. 즉 농가가 씨앗은행이 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씨앗모임을 만들면 별도의 운영과 시설 없이 씨앗이 현지 보전되고, 토종씨앗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농가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것은 씨앗을 옮기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농가와 토종씨앗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구체성 및 확장성을 지니도록 한다.

토종씨앗은 작물마다 여러 품종이 있는바, 특성 조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토종씨앗은 유전자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특성평가를 해왔으나 학문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농민이 보전하고 있는 작물의 다양한 품종특성을 직접 연구하고 공유하여 정보를 채워나갈 수 있다. 보전농가가 토종씨앗의 지속적 재배를 통해 나눔, 특성공유 등 1작물 1품종 농가원칙으로 품종별 씨앗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일은 단순한 나눔 활동을 넘어 농가에 토종 품종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내는 실태 조사 위에 지역단위별, 작

3) 본 연구자는 7년 동안 상업적 수익을 내지 않고 씨앗 나눔으로만 방출해왔다.

4) 지역에서 수집된 종자는 지역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토종씨앗도서관은 대신농촌재단 농업실용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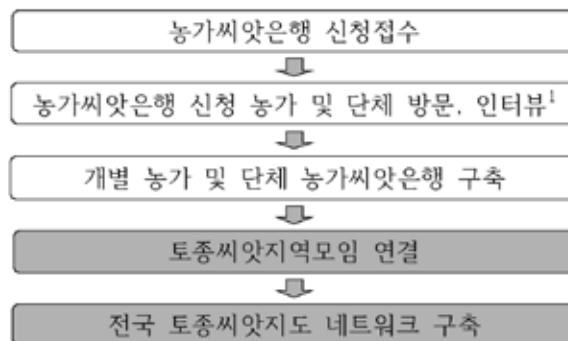
목별로 네트워크(모임)를 형성하는 것이다. 모임은 씨앗에 대한 교육과 홍보만이 아니라 씨앗의 수집, 증식, 보급, 특성연구 등을 통해 토종씨앗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수집, 증식, 나눔, 보존은 일부 단체가 아닌 농가와 농민이 직접 종자권을 갖는 데 시급하고 필연적인 일이다. 농부가 종자를 보유하고 선발 육종하여 공유하는 것은 기업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씨앗을 도둑맞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 연구 방법 및 내용

### 1. 연구 방법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개별 농가 및 단체가 씨앗은행이 되어 토종씨앗 지역모임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전국 토종씨앗지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농가씨앗은행이 되고자 하는 농가를 찾기 위해 농가씨앗은행 신청을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가와 단체를 방문해 인터뷰와 제반 조사를 했다. 지역 내 농가씨앗은행 개별 농가 및 단체를 연결하여 모임을 구성하고 도, 시, 군단위로 지역모임을 했다. 40여 곳의 토종씨앗지역모임을 전국지역모임, 작목반 모임으로 연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토종씨앗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주: 현장 방문 외 기존 실태조사자료 연결, 대면·전화인터뷰 진행

[그림 1] 연구내용 모형

## 2. 연구 내용

### 가. 토종씨앗은행 농가, 단체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 1) 농가씨앗은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2017년 4월 토종씨드림 카페에 농가씨앗은행 취지를 설명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았고, 토종씨앗 재배 농민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신청서를 직접 받았다.

#### 2) 신청농가 방문 시 지역 농가 방문

신청 농가를 방문하여 작물 재배자를 면담하고 제반 조사를 진행했다. 신청자 외에도 인근 토종씨앗 농가를 탐문해서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씨앗은행 신청서 접수, 인터뷰, 제반 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농가씨앗은행 신청 255농가 중 141농가를 방문하였고, 방문하지 못한 84농가는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sup>5)</sup>

#### 3) 지역단체 또는 기관 방문

토종씨앗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기관 50여 곳을 방문해 면담과 조사를 했다. 귀농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로컬푸드매장, 씨앗도서관, 종자관리소, 농민협동조합, 수녀원 등을 방문하여 기존 단체 네트워크와 그밖에 지역 토종씨앗 농가를 연결해 지역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

5)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토종씨드림 행사 및 지역모임에 방문했다.

## 나. 현장 방문 외 기존 실태조사 자료 연결

농가씨앗은행 신청자 225농가의 인적사항, 토종재배품종 및 이력, 재배방식, 재배규모, 농사경력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농가씨앗은행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실태조사, 임신실태조사, 법씨모임실태조사 자료를 농가씨앗은행에 연결했다.

### 1)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실태조사

전여농 회원을 대상으로 한 토종씨앗재배 조사 자료를 농가씨앗은행에 연결했다. 물론 농가씨앗은행에 이미 연결된 농가도 다수 포함되었지만 지역별 네트워크에 전여농을 연결하여 지역에서 토종씨앗 보급과 연구를 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여농 조직 외에 지역씨앗 모임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도록 2018년 7월 강원도 홍천에서 강원도 모임을 구성하고, 홍천토종씨앗수집이 가능한 인근지역모임에서 참여하도록 했다.

### 2) 임신실태조사

2015년 임신여성농업인센터가 진행한 여성농민 토종씨앗실태조사 자료를 받았다. 임신 지역은 현재 임신여성농업인센터에서 토종씨앗 보급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토종씨드림은 토종배추 5품종 등 씨앗을 제공하여 지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법씨모임실태조사

법씨모임은 경기 고양시 이근이 농부가 법씨에 관심 있는 농부를 카카오톡 모임방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2017년 4월 논산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목별 모임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고무되어 농가씨앗은행을 중심으로 고추작목반, 콩 작목반이 구성되었다.

## 연구 결과

### 1. 전국 지역별 농가은행 네트워크 ‘지역모임’ 구성

#### 가. 첫 모임

##### 1) 토종씨드림 10주년 행사

2018년 2월 24일 토종씨드림 10주년 행사가 열렸다. 전국에서 토종씨앗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작목반, 지역모임, 토종농사 농가 및 단체 등 22개 부스가 세워져 전시와 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행사 참여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콩, 벼씨, 잡곡, 고추 4개 작목반, 10개 지역모임, 전통음식, 토종농사 짓는 농민 8명과 단체 등이 참여했다.



[그림 2] 토종씨드림 10주년 행사

##### 2) 지역모임 구성

2018년 8월까지 전국에서 지역모임은 5차례 하고, 지역별 현황 공유와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 1> 전국 및 지역모임 현황

일정	모임	장소	참석지역 및 단체 수	내용
2018. 3. 14.	전국	남원	15	- 작목별 현황 공유 - 모임 활성화 논의 - 토종 씨드립 종자 배분
2018. 6. 3.	서울·경기	고양	12	- 지역별 현황 공유 -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토종배추 5품종 나눔행사 논의
2018. 6. 22.	광주·전라	순창	4	
2018. 6. 24.	부산·경남	진주	3	
2018. 7. 18	강원	홍천	4	



작목별 현황 공유



종자 증식

[그림 3] 1차 전국 지역·작목반 모임



서울·경기(2018. 6. 3.)



광주·전라(2018. 6. 22.)



부산·경남(2018. 6. 24.)



강원(2018. 7. 18.)

[그림 4] 지역모임

### 나. 지역모임 현황<sup>6)</sup>

2018년 7월 현재까지 전국에 40여 지역모임이 있고, 새로운 지역모임이 계속 결성되고 있다. 각 지역 토종씨앗모임은 지역별 토종씨앗보급소 역할을 맡아 토종씨앗 증식 및 나눔, 수집, 작목반 결성 등 지역 내에 토종씨앗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토종씨앗모임은 다양한 형태로 결성되어 있다. 귀농인과 농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완주씨앗모임과 공주씨앗모임, 여성농민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진주씨앗모임,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창씨앗모임과 임실씨앗모임, 서울도시농업단체들이 함께 하는 서울씨앗모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부회원과 인천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인천씨앗모임, 원주한살림텃밭회원들이 중심이 된 원주씨앗모임, 경남한살림 회원이 중심이 된 밀양씨앗모임, 농민, 귀농예정자, 소비자 등 개인과 지역단체들이 함께 하는 순천씨앗모임, 부산귀농학교 출신자들이 모여 만든 부산씨앗모임 씨농과 순창씨앗모임, 광주지역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광주씨앗모임, 귀농인만으로 구성된 하동씨앗모임, 씨앗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춘천씨앗모임 등 각 지역에 농가은행 외에 토종씨앗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다.

16개월간 농가씨앗은행 방문을 통해 지역모임을 결성했고, 지역별 토종씨앗 보급 역할을

6) 지역모임에 대한 소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8월 22~28일 일주일간 전국에서 ‘토종배추 모종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토종씨앗 지역모임과 또는 지역모임을 결성하고자 하는 농가가 주도하여 진행했다. 지역별로 토종씨드림 농가은행에서 분양받은 5품종의 토종배추 씨앗을 배분하여, 지역모임에서 모종을 내는 일에서부터 지역민에게 나눔하고 이후 수확과 채종안내까지 도맡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결합을 이루었다. 지역모임이 지역에서 명실공히 씨앗보급소 역할과 씨앗에서 음식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5] 지역모임 분포도

### 다. 참여 단체, 기관

2018년 현재 농가씨앗은행에는 45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단체 대부분이 토종씨앗지역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토종씨드림 농민회원으로 구성된 토종농민회, 수녀들의 수도회별 농사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수녀생태공동체, 교사들의 의

사소통교육 공동체 행복자리, 생태유아교육의 본산지 경기·서울 지역의 수도권생태유아 공동체 등이 단체별로 토종씨앗 보급 및 순환활동을 하고 있다.

<표 2> 농가씨앗은행 참여 단체

지역		단체명
강원	춘천시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춘천두레생협, 춘천토종씨앗도서관
	홍천군	한국순교복지수녀회
	횡성군	횡성여성농업인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텃밭보급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인천광역시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경기	성남시	자유밭도르프학교
	수원시	수원 토종학교, 행복을 함께 함께하는 자리
	시흥시	성가포도농원(성가소비녀회),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안산시	우리동네농부들
	양평군	내림의집, 용문성당 나사렛집수녀원
	평택시	경기도종자관리소(평택분소)
	화성시	화성시로컬푸드, 양감감리교회
충북	보은군	기대리 선애빌
충남	공주시	두레배움터
	아산시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홍성군	풀무학교, 홍성씨앗도서관, 홍성 자연재배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주귀농학교, 한새봉두레
전북	남원시	귀정사, 실상사
	순창군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
	완주군	완주로컬푸드, 에버팜
	임실군	임실여성농업인센터
	정읍시	순리원
전남	강진군	가배울(달마지마을), 사랑의 씨튼 수녀원
	영암군	까리따스 수녀원
부산광역시		부산 귀농학교 '씨농'
경북	상주시	한농마을
	영주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 연구소, 빛마을 교회
경남	고성군	베네딕도의 집, 진주텃밭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어농연(어설픈농부들의연합)

## 라. 전국 지역, 작목모임 구성

현재까지 법씨, 과수, 고추, 콩, 잡곡, 오이 등 6개 작목반이 결성됐다. 다양한 작물별 품종 특성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추, 무, 감자 등 작목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전국단위로 시작했던 작목반이 토종씨앗 지역모임 내에서 결성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1) 법씨 작목반

우보농장(경기 고양)을 중심으로 150품종 이상의 토종벼가 전국에서 증식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토종쌀 테이스팅 워크숍, 전시회, 막걸리 시음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별 토종쌀을 알리고 사라진 토종법씨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씨작목반에는 49개 농가가 참여한다. 2018년 토종벼 나눔의 날 행사에서 우보농장의 2016, 2017년 증식종자 100여 점과 토종씨드림의 2018년 증식종자 47점을 나눔 했다.

### 2) 토종과수 작목반(2018. 4. 21. 상주)

토종과수 작목반 첫 모임은 경북 상주에서 40여 명의 참여로 진행했다. 사라지는 과수품종을 찾아내어 접목을 통해 보존하고, 우리 입맛에 남아있는 옛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작목반을 결성했다. 이날 홍옥과 개복숭아 접목 실습을 동시에 진행했다. 또한 늦가을에 선도농가를 방문하여 토종과수작목반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 3) 고추 작목반(2018. 4. 21. 상주)

과수 작목반에 연이어 열린 고추 작목반은 토종 농민회를 중심으로 토종고추 12품종을 연구 중이다. 이날 고추 작목반에서 농가별로 품종을 선택하여 연내에 재배특성 비교하기로 했다. 토종고추 품종은 음성재래, 임실재래, 대화초, 빵빵이초, 칠성초, 수비초, 청룡초, 금패황양각초(중국토종), 사근초, 앓은뱅이초, 강원재래, 곡성초이다.

#### 4) 콩 작목반(2018. 5. 11. 전주)

콩 작목반 모임은 전주에서 진행했다. 농부 40여 명이 참석해 밥밀콩을 중심으로 콩, 녹두, 강낭콩, 동부 등 토종콩류 100여 종을 증식, 나눔 했다. 증식한 토종콩은 2019년 1월 19~20일에 열린 토종씨드림 정기모임 ‘씨앗의 향연’에서 작목별로 특성을 발표하였다. 워크숍에서 특성비교와 재배방법, 활용방법 등을 공유하여 다양한 품종에 특성을 공유하여 농민이나 도시농부들이 자신에 맞는 토종씨앗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 5) 잡곡 작목반(2018. 5. 11. 전주)

콩 작목반 모임에 연이어 열린 잡곡 작목반 모임은 2017년부터 진행된 토종보리, 밀, 호밀 특성비교를 바탕으로 농민을 중심으로 증식해 특성을 비교하고 확산시켰다. 그밖에도 2019년부터 기장, 조, 수수, 울무 등 토종 잡곡 작목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6) 오이 작목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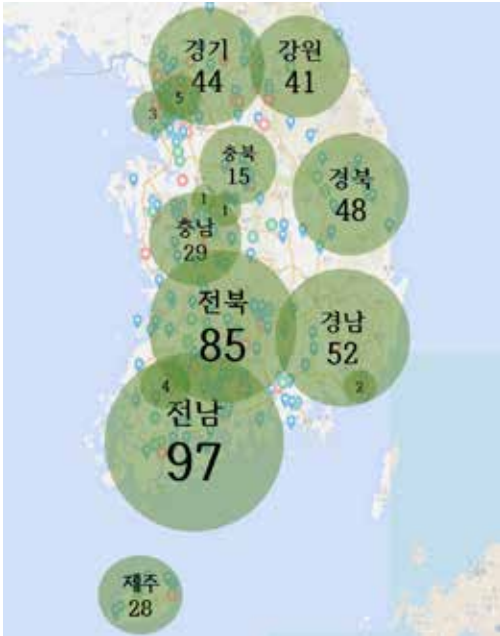
오이 작목반은 충북 진천에 구성되었고, 지역별 수집종자 5품종을 재배하여 2019년 1월 19~20일에 작목별 워크숍을 통해 특성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자는 농장(곡성 은은가)으로 수집된 종자를 품종별로 증식하면서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2017~18년은 조선배추 3품종, 참밀 5품종, 감자 5품종, 나물콩 30품종, 볏씨 8품종, 고추 5품종, 수집종 키작은강낭콩 10품종 외에 보리, 무품종 재배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은은가의 초벌 연구 결과를 갖고 2019년도에는 농민과 도시농부에게 특성공유를 하여 농민이 손쉽게 자신의 품종을 선택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2. 토종씨앗지도

### 가. 농가씨앗은행 현황

농가씨앗은행 신청 및 방문 225농가와 전여농 실태조사 172농가, 법씨작목반 42농가, 임실군 실태조사 16농가를 연결해 총 455개 농가씨앗은행이 구성되었다. 15개 도·광역시, 98개 시·군에 455개 농가씨앗은행이 만들어졌다. 전남 97개, 전북 85개, 경남 52개, 경북 48개, 경기 44개, 강원 41개, 충남 29개, 제주 28개, 충북 15개 순이다.



[그림 6] 농가씨앗은행 분포도

<표 3> 지역별 농가씨앗은행

지역	농가씨앗은행 수
전남	97개
전북	85개
경남	52개
경북	48개
경기	44개
강원	41개
충남	29개
제주	28개
충북	15개
기타	16개
총	455개

주: 서울, 인천, 세종, 대전, 광주,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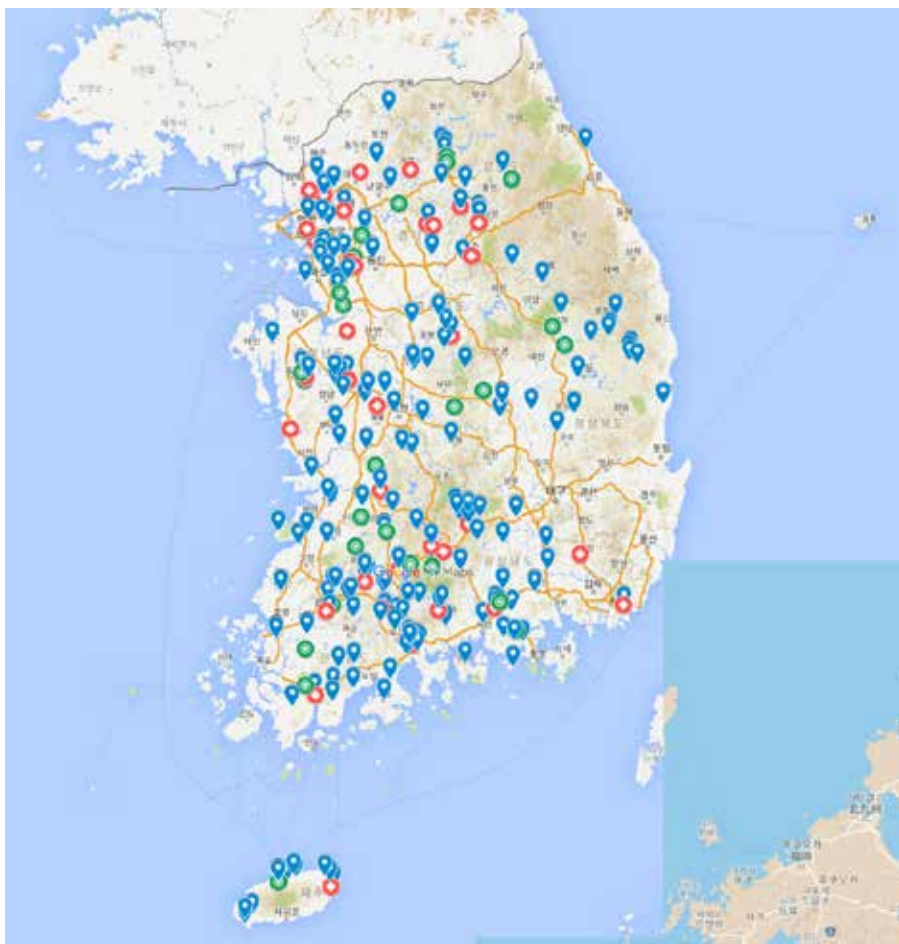
### 나. 전국토종씨앗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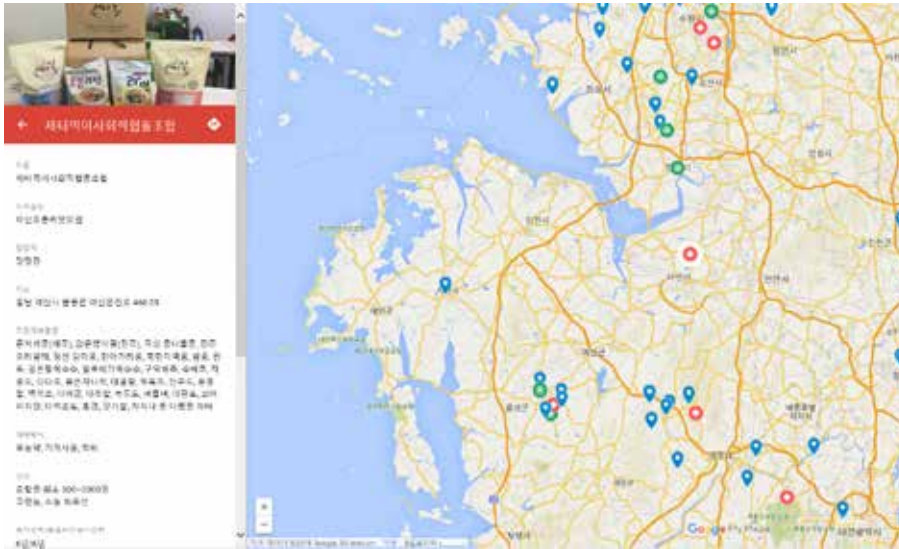
전국토종씨앗지도는 구글맵스를 활용하였고, 지도 위에 씨앗은행을 농가, 단체, 지역모임별로 아이콘을 다르게 표시해 구분하도록 했다.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농가씨앗은행별로 농가 이름, 주소, 연락처, 토종재배품종, 재배방식, 재배규모, 경력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토종씨앗지도를 제대로 구현하고 공개할 때는 지역씨앗모임이나 단체명을 제외하고 지역의 읍·면·동·리 단위까지만 표기할 예정이다.

##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각 농가 및 단체를 방문하여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방문하지 못한 곳은 전화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총 255농가를 정리하였다. 2018년 8월 토종씨드림이 개최한 ‘토종배추 모종 나눔 행사’는 각 지역모임이 지역별 <토종씨앗보급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체계적이고





농가씨앗은행, 토종씨앗이력 확인



토종씨앗모임, 토종씨앗 활동 단체 공개

[그림 기] 토종씨드림 토종씨앗지도(구글맵스)

무차별적인 씨앗 보급에서 벗어나 지역을 근간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와 시사점은 첫째, 지역에서 수집된 종자가 지역에서 나누어지고 보전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8년부터 양평, 홍천, 순천, 진안은 각 지역의 씨앗모임과 함께 수집

하고, 수집된 씨앗을 증식하여 지역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에 지역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씨앗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씨앗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확연하게 특성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제주 푸른독새기콩이나 한아가리콩은 다른 지역과 토양에서는 색깔과 맛의 특성 변화가 일어난다. 씨앗이 수집 지역 밖으로 이전되면 동일 품종의 지역 특성 연구가 가능하므로 토종씨앗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모임 구성원들이 각각 씨앗채종포 역할을 함으로써 농가별 1작물 1품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 상태 농가에서 품종 비교를 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역모임에서 지역 특성비교가 가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 농가씨앗은행이 모인 지역모임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작물과 품종을 선정해 농가들이 협력 생산하는 생산공동체를 결성하면 소비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섯째, 전국단위에서 진행해 온 홍보, 교육, 체험, 문화 활동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전개할 수 있다. 우리 씨앗을 지켜내는 일은 현지보전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농민, 도시농부, 소비자가 지역단위로 모이고, 지역에서 각종 활동의 결과물이 전국단위에서 공유된다면 토종씨앗이 빠른 속도로 정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섯째, 농가씨앗은행이 구성한 지역모임은 저장고와 별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운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본 연구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토종농가의 현황을 파악하며 전체 그림을 그렸다면 앞으로는 지역별 모임이 주체가 되어 본 연구에서 누락된 농가를 찾아 농가씨앗지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지역별 모임은 마을단위 또는 다양한 특성을 매개로 세분할 수 있다. 작은 단위일수록 더 잘 운용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 농가가 씨앗은행이 되는 날은 토종이라는 말을 떼고 ‘씨앗’이 농부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채종하는 농사, 씨앗을 이어받는 농사, 즉 식량과 생명권이 더는 남에게 맡겨지지 않는 농부권이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다. 토종씨앗 한 품종에 담긴 수많은 전통지식과 지혜가 농부와 지역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활용되는 것이다. 이제 고령의 농민으로부터 수집된 토종 씨앗이 토종 농가에서 대를 이어가며, 농가별 네트워크를 통해 종자권을 지키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토종씨앗지도가 전국에 산재한 농기를 기록한 2차원 평면이라면 앞으로 토종씨드림이 진행되는 토종씨앗데이터베이스는 씨앗과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를 추적하는 3차원 입체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토종씨앗지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토종씨앗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완성을 통해 토종씨앗운동의 한 획을 긋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금창영·김시용·오도·신소희. 2015. “우리 마을 씨앗도서관 만들기”. 대산농촌재단 농업실용연구총서5: pp81-122
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17. 『전여농 토종씨앗지킴이 10년의 자료집 ‘생명을 담은 토종씨앗, 함께 지켜요!’』
3. 임신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2015. 『임신여성농업인이 찾아낸 임신토종종자이야기 ‘내가 죽으면 꽃밭에 앉았을라고 심어놨제’』
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2013. 『제주도 우영엔 토종이 자란다』.
5. 오숙민, 한영미. 2017. 『횡성에서 살아온 토종씨앗들』. 도서출판 시금치
6. 김정희. 2017. 『전남토종농사와 여성농민 지원방안』. (재)전남여성플라자

## [부록] 지역모임 소개

전국 40여 곳에서 활동 중인 토종씨앗모임은 강원 4곳, 서울 1곳, 인천 1곳, 경기 7곳, 충남 4곳, 전북 4곳, 전남 3곳, 부산 1곳, 경남 5곳, 제주 1곳, 전국단위 4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토종씨앗모임 소개와 씨앗모임 전단계인 채종포, 개인 채종포도 소개하고자 한다.

### 1. 강원도

#### 가. 강원여농

강원도는 한영미 토종씨드림 운영위원이 있는 지역으로 전여농에서도 활발하게 토종씨앗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2014년 횡성지역에서 토종씨드림과 여농회원이 함께 토종씨앗 84작물 400여 점을 수집한 바 있으며, 2018년 8월에 토종씨드림과 강원여농이 중심이 되어 토종작물을 수집하였고 2019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원여농은 5개 지역 채종포를 운영하고 전여농 회원에 씨앗을 보급하고 있다.



횡성 여성농업인센터 채종포



홍천 여성농민회 채종포

#### [부도 1] 강원여농 채종포

## 나. 춘천씨앗모임

춘천씨앗모임은 2016년 12월 춘천두레생협에 토종씨앗도서관을 만들어 씨앗을 전시하고 있다. 춘천씨앗모임, 춘천씨앗도서관,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3개 모임은 ‘2018년 8월 토종배추 모종 나눔 행사’(이하 8월 모종 행사)를 주최하여 춘천에서 배추모종 나눔을 진행했다. 이 중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농부학교와 학교텃밭 활동을 하며 토종씨앗모임활동이 활발하다.

## 다. 원주토종씨앗모임

원주한살림은 토종씨앗과는 무관하게 텃밭을 운영하다가 2018년 2월 토종씨드림 토종씨앗 교육을 통해 텃밭을 채종포로 하는 씨앗모임을 구성하였다. 8월 모종 행사에 배추모종을 내고, 한살림 회원에게 나누는 토종씨앗 보급 활동을 했다.



토종씨앗 교육



원주한살림 텃밭

[부도 2] 원주한살림 토종씨앗모임

## 라. 홍천 농생활연구소/하늘땅살이움터

홍천 마을공동체 하늘땅살이움터는 토종씨앗으로 농사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진행한 홍천 토종씨앗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내부적으로 토종씨앗 증

식, 보존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지역민들과 교류하고 있다.

## 2. 서울, 인천, 경기

### 가. 인천씨앗모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천토종씨앗모임에 인천토종씨앗보급소를 결성했다. 토종씨드림 1호 지역토종씨앗보급소로 2018년 8월 인천지역 도시농장에 토종배추 4품종 보급을 하고 이후 가지과 작물에 집중하고 있다.



토종씨앗 전시 홍보 행사



토종씨앗 모종 나눔 행사 준비

[부도 3] 인천 토종씨앗모임

### 나. 서울씨앗모임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소속 40개 단체가 서울씨앗모임을 구성하여 단체별로 1작물 1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은행이 되어 토종씨앗보급을 한다.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2018년 서울토종씨앗지도를 만들었다.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토종씨앗지도



서울 토종씨앗모임 전시 및 나눔

#### [부도 4] 서울 토종씨앗모임

### 다. 가평씨앗모임

2018년 배추 모종 공동 경작과 김장, 2019년 채종 및 토종씨앗 나눔 준비 등 모임 활성화와 비영리단체 조직을 모색하고 있다. 가평군 내 토종씨앗 보급소 역할을 하고 농장에서 생태교육과 노작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라. 양평씨앗모임

2017년 수녀원과 김은숙 농가가 주축이 돼 토종씨드림 회원이 모였다. 2018년 경기도 토종작물지원사업으로 토종씨드림 회원과 함께 양평토종씨앗을 수집 중이며, 지역모임과 양평로컬푸드 연계해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마. 시흥씨앗모임

본 연구자가 자활공동체 연두농장을 운영했던 지역으로 이후 도시농업은 활성화되었지만 토종씨앗 보급은 미진하여 토종배추 나눔을 통해 시흥씨앗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실천협의회 구성원이 공동텃밭을 운영하고 있어 텃밭 중심의 모임을 구상하고 있다.

## 바. 양주씨앗모임

공동텃밭을 경작하는 도시농부 11명이 모여 ‘토종씨앗공동체 콩자루’를 결성해 토종씨앗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모여 토종씨앗, 토종농사 공부를 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토종씨앗 활동을 기획했고 8월 모종 행사와 9월 지역 행사에 토종씨앗 전시, 나눔을 했다.



토종씨앗 공동텃밭 채종포



토종배추 모종 나눔 준비

[부도 5] 양주 토종씨앗모임

## 사. 김포씨앗모임

김포도시농부학교 졸업생과 행복자리 교사활동가를 중심으로 김포씨앗모임을 구성하였다. 현재는 채종포 역할에 주력하지만 8월 모종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토종씨앗을 보급함으로써 씨앗모임을 활성화했다.

## 아. 화성로컬푸드

토종씨드림은 2016, 2017년 화성시 토종씨앗 400여 품종을 수집하였다. 화성시 로컬푸드가 지역거점이 되어 농민에게 수집종자를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생산자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화성시 로컬푸드가 토종씨앗 보

급, 교육, 판매활동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여 생산농가가 토종농산물 재배를 확대,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로컬푸드는 토종씨앗재배 농가 활성화를 위해 토종농산물 매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토종씨앗 수집 보고 및 생산농가 교육



토종 농산물 매대

[부도 6] 화성 로컬푸드

### 자. 고양시 우보농장

토종벼씨 작목반과 고양시 토종씨앗모임을 구성한 우보농장은 100여 품종(토종씨드림 분양 포함)의 토종벼를 전통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토종벼씨 작목반을 구성해 토종벼씨 채종포 및 보급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벼씨 이외에도 김장공동체, 감자공동체 등을 구성해 토종배추, 토종감자 보급에 나서고 있다.

## 3. 충청도

### 가. 공주씨앗모임

2015년 공주두레공동체를 중심으로 토종씨앗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토종작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토종씨앗교류를 해왔다. 2018년 두레공동체를 중심으로 토종씨앗모임을 구성하여 8월 모종 행사에서 5종의 배추모종을 공급했으며 2019년에는 공주지역

토종씨앗 수집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공주지역은 토담뜰 농사공동체가 농가씨앗은행의 채종포 및 나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농민회와 연결고리가 없이 각자 씨앗모임을 진행 중이다.



'두레 배움터' 배추 모종 나눔 준비



'토담뜰(토종을 담은 뜰)' 채종포

[부도 7] 공주 토종씨앗모임

### 나. 아산씨앗모임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50농가가 나물콩, 얇은뱅이밀을 재배하여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가공공장을 통해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다. 아산씨앗모임은 생산자가 구성원이 되고 아산제터먹이가 주도하는 형태를 띤다. 2018년 나물콩과 메주콩 30여 종을 토종씨드림에서 분양받아 증식하고 있으며, 2019년 농민협동조합원에게 생산-가공을 연결할 예정이다. 제터먹이는 매년 농부학교를 열어 토종씨앗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다. 홍성씨앗모임

토종범씨 30종을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풀무학교는 토종씨앗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이점은 홍성의 지역특성만큼 농가은행이 존재하고,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홍성씨앗도서관이나 자연재배협동조합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 라. 보령씨앗모임

토종농민회 회원이 마을 단위로 씨앗모임을 구성하고, 귀농인도 구성하여 토종씨앗을 재배·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마. 부여군 토종종자센터

전여농의 주요 채종포로 부여여농회원들이 주도하여 진행 중이다.



전여농 생태학교 부여 채종포



부여 토종작물 장터

[부도 8] 부여 토종씨앗모임

## 4. 전라도

### 가. 순천토종씨앗모임

2015년 연구자의 4차례에 걸친 토종씨앗 교육을 통해 4명이었던 아이쿱생협 소모임 활동을 확대하여 순천토종씨앗모임으로 만들었다. 2016년 곡성 수집종자 320종을 증식하고 채종하여 나누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7년 증식채종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농사 체험과 토종텃밭 모델 방문, 토종음식시연, 토종씨앗 나눔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일상적인 채종증

식 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순천토종씨앗모임 구성원이 농가씨앗은행이 되어 씨앗을 자체 수급하고 보급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순천시와 지역씨앗모임이 ‘토종종자 보전 및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토종씨앗 수집을 진행한다.

#### 나. 완주토종씨앗모임

지역 여성농민 한사람(이종란 씨)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농민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토종씨앗모임을 결성하였다. 2017년부터 공동채종포에서 공동작업을 하였고 2018년에 토종작물모종 비닐하우스를 마련했다. 특히 2017년 완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200~300명의 생산자에게 토종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토종씨드림이 토종씨앗을 제공하고, 완주씨앗모임과 연결하여 씨앗증식, 나눔, 토종작물 생산, 판매를 지역순환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 다. 광주토종씨앗모임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는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인식해 매년 토종씨앗 강좌를 열어왔는데 2018년에는 토종씨앗만을 다루는 토종학교를 열어 본 연구자가 매달 토종씨앗, 토종농사 교육을 진행 중이다. 토종학교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보자기장’은 토종농산물과 토종음식을 선보이는 행사이며, 앞으로 토종씨앗과 모종을 공급하는 문화의 장으로 기획 중이다.

이 밖에도 광주토장씨앗모임의 구성원이 만든 한새봉두레는 더 작은 지역단위에서 토종씨앗 도시농부 장을 기획·진행하였다. 모임의 구성원이 더 작은 단위에서 토종씨앗 보급 활성화에 나서는 사례로 꼽힌다.



광주 토종학교 강좌



광주 '보자기밭'

[부도 9] 광주 토종씨앗모임

## 라. 순창씨앗모임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는 전국귀농운동본부 직할로 운영되고 있으며, 귀농인을 위한 장기합숙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귀농인 교육 중에 토종씨앗 강좌가 필수로 포함돼 본 연구자가 일찍이 자립자급생활과 토종씨앗강좌를 지속했다.

2016년에 순창지역 토종씨앗모임을 개설하여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에 토종씨앗품종을 향시 전시하고 정기적으로 나누었다. 2017년은 순창귀농인을 대상으로 토종농부강좌를 개설하여 매달 농가별 현장지도를 하였으며, 토종씨드림 종자를 책임 증식했다. 2018은 순창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순창지역에서 수집된 토종씨앗 10품종의 성분 분석을 하고, 토종씨드림의 토종배추 5품종을 길러 지역민에게 보급하는 행사를 했다.

## 마. 남원씨앗모임

2018년 2월, 토종씨앗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새싹작은도서관에 모여 남원씨앗모임을 결성했다. 3월에는 씨앗모임 구성원들이 실상사에서 봄여름 씨앗을 나눔하였다. 실상사 농장 1만 평을 토종씨앗 채종포로 거점으로 하고, 봄 토종씨앗 20여종과 고추모종을 비롯한 과채류 모종 나눔을 실시했다. 남원씨앗모임은 실상사와 귀정사 외에 귀농인이 결합하여 진행 중이다.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 토종씨앗 전시



순창 토종씨앗 모임 증식과 나눔 활동

#### [부도 10] 순창 토종씨앗모임



남원 토종씨앗 첫 모임



남원 토종씨앗모임 씨앗 나눔

#### [부도 11] 남원 토종씨앗모임

### 바. 곡성토종씨앗모임

곡성은 본 연구자가 사는 지역으로 2011년에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 지원으로 토종씨앗을 320종을 수집하였고,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토종씨앗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때문에 개별농가가 채종포를 하는 등 비교적 많은 농민이 토종작물을 재배한다. 농민회를 중심으로 토종씨앗모임이 구성돼 있지만 별 활동이 없어 마을 단위에서 토종씨앗을 재배하고 채종하는 등 농가은행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농부교육 및 토종씨앗 나눔



곡성 채종포 농가 현장 교육

[부도 12] 곡성 토종씨앗모임

## 사. 임신여성농업인센터

임신여성농업인센터가 중심이 되어 임신지역 토종씨앗나눔을 하고 있다.

### 아. 고창토종연구회

고창여성농회원들이 공동 채종포를 꾸렸으며, 고창여성농민들이 모여 고창토종연구회를 결성하고 지역모임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 자. 장흥 남도토종연구회

장흥은 토종씨앗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 개인이 주축이 되어 씨앗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종씨앗을 평생 수집하고 보급한 이영동 씨는 직접 수집하고 증식해온 토종씨앗 150종을 전시 나눔하고 있다. 허인숙 씨는 토종메주콩을 직접 농사짓고, 된장을 만드는 장인으로 토종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

토종씨앗모임은 없지만 전라씨드림 정기나눔과 남도토종연구회를 중심으로 토종씨앗 보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집 종자(이영동 씨)



토종작목반 교육(이영동 씨)

[부도 13] 장흥 남도토종연구회

#### 차. 강진해남씨앗모임 전 단계인 채종포

씨튼수녀회 데리사 수녀님이 자발적으로 토종씨앗 채종포를 운영하여 토종씨앗보급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임이 진행되지 않는다. 앞으로 토종씨앗 보급을 통해 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다. 강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마을단위에서 토종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사정에 따라 토종작물을 소수 재배하고 있다.

#### 카. 담양씨앗모임 전 단계인 채종포

농가은행 농가들이 있으며, 2019년 담양씨앗모임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는 더 많은 농가를 찾아 모임으로 구성하는 단계다.

#### 타. 장성 토종씨앗연구회

농가은행과는 별도로 개인(전춘섭 씨)이 2017년 70여 명의 농민과 토종씨앗연구회를 구성하여 토종씨앗보전 운동에 나섰다. 전춘섭 씨는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종씨앗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가져온 150종을 수집하여 나눔을 계획하고 있다.

## 5. 경상도

### 가. 거창토종씨앗모임

여성농민과 도시농부, 소비자의 참여가 많은 지역으로 토종씨앗 관련 활동이 활발하다. 거창씨앗모임은 2015~16년에 걸쳐 거창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관하는 토종씨앗 교육을 본 연구자가 맡아 진행하면서 토종씨앗을 제공하고 전통농사에 관한 다양한 현장교육 등 활발한 교류가 밀바탕이 되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여성농민과 한살림생산자들의 협동조합인 ‘아날 협동조합’을 만들어 토종씨앗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아날 협동조합 회원과 거창씨앗모임회원이 토종씨앗 수집활동을 진행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종자를 분류하여 책임 증식하였으며 씨앗 수집부터 채종, 활용방법이 담긴 기록물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거창 토종씨앗 모임 수집활동



아날 협동조합

[부도 14] 거창 토종씨앗모임

### 나. 진주토종씨앗모임

2018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토종씨앗동아리 회원 8명이 모여 진주 토종씨앗모임을 결성했다. 진주 여성농민이 주도하여 진주시 토종농산물 농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진주텃밭’ 및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거점이 되어 진주토종씨앗모임이 결성이 돼 농가에 토종씨

앗을 보급하고 전락품종 재배를 권유하는 등 토종씨앗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8월 모종 행사를 기점으로 지역토종씨앗보급소를 지역주민에게 알렸다.

#### 다. 부산토종씨앗모임

부산씨앗모임 ‘씨농’은 부산생태귀농학교 출신 35명의 회원을 둔 토종씨앗모임으로 귀농학교 출신자에게 씨앗을 제공해왔다. 2017년 농가은행 방문을 통해 토종씨앗모임의 사업방향을 논의하였고, 씨앗활동을 더욱 심층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8월 모종 행사를 통해 농가씨앗은행과 채종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 귀농학교 ‘씨농’ 전시 및 씨앗나눔



배추모종 나눔 준비

[부도 15] 부산 토종씨앗 모임

#### 라. 하동씨앗모임

하동씨앗모임은 귀농인이 주축이 된 농가은행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로 악양면에 사는 귀농인으로 구성되어 농가별 채종포를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토종씨앗 교육을 통해 확대하고 있다.

### 마. 밀양 토종씨앗모임

밀양 한살림 회원으로 구성된 밀양씨앗모임은 8월 모종 행사에 배추모종 공급을 계기로 지역주민에게 씨앗모임을 알리고 토종씨앗보급소 역할을 했다.

### 바. 함양 토종씨앗모임

함양 토종씨앗모임에는 함양온배움터 출신 귀농인과 함양농민회, 함양시민연대 등이 참여하여 씨앗을 나누고 공동 채종포 외에 농가별 주요 작물을 정하여 재배하고 있다. 토종씨앗에 관한 노래를 만드는 등 씨앗관련 문화 활동을 기획하며 수시로 모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함양지역 토종씨앗 수집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사. 경북지역모임

경북 봉화, 안동, 영주 지역은 농가씨앗 은행이 지역모임을 구성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농가은행과 별도로 온라인과 농가 교류를 통해 씨앗을 교류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봉화의 박성인 씨는 1만평의 농지에서 생산한 토종작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토종씨앗을 나눈다. 영양의 서정희 씨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토종씨앗을 보급하고 있다.

## 6. 제주도

### 가. 제주씨앗모임

제주여농회와 토종농민회가 토종씨앗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토종씨앗보급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제주여농회와 토종농민회, 귀농인을 연결하고자 했지만 각 모임의 특수성으로 제주여농회, 토종농민회, 어설피농부들연합(어농연) 세 모임이 함께 토종씨앗 채종포 및 보급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7. 전국단위 토종씨앗모임

### 가. 토종농민회

본 연구자는 2014년 ‘토종농민회’라는 전업농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모임을 만들었다. 토종농민회는 토종씨앗으로 전통농사 및 자연농을 하는 농민으로만 구성돼 있다. 규모 있는 상업농을 겸하는 농민 중에서도 유기농가 외에는 가입할 수 없다. 매년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통해 토종씨앗 작물품종 연구 및 농사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토종씨드림의 농가 은행 및 주요 채종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삶도 자립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삶의 방식과 사유에 관한 일상적 공감을 해나가고 있다.

### 나. 생태수녀공동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녀생태공동체는 채소부터 곡식까지 자급을 기본으로 다양한 토종씨앗을 심어오고 있다. 영암 까리따스 수도원, 강진 사랑의 씨튼 수녀회, 고성 성 베네딕도 수도원, 양평 용문성당 나자렛집 수녀원 등은 각 지역에서 생태교육 및 채종포의 역할을 도맡아 갈 예정이다.

### 다. 행복자리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의사소통 교육공동체로 토종씨드림 토종학교에서 토종씨앗농사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토종씨앗을 매개로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바꿔 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 라. 생태유아공동체

2006년 유아교육기관 텃밭교육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텃밭보급소에서 토종씨앗을 지원받아 텃밭을 일구었고, 2016년부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와 함께

토종씨앗 채종포 공동경작을 시작으로 토종씨앗 기금 운동과 보존 운동에 참여하여 수확한 토종씨앗을 유아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올해 토종씨드림과 MOU를 체결해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조합기관에 토종배추 모종을 보급하여 유아교육기관 토종씨앗 텃밭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종농민회 정기모임



생태수녀공동체 모임



행복자리 교육



생태유아공동체 MOU

[부도 16] 전국단위 토종씨앗모임